

Living the Lotus 9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40



Rissho Kosei-kai of Sri Lanka

Living the Lotus
Vol. 240 (September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코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인생의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준비

니와노 니치코
입정교성회 회장

떠나가는 것은 떠나가고 다시 가득 채워지고

인생은 흔히 사계절에 비유됩니다. 생명의 싹이 트고 자라는 성장기는 봄, 에너지가 넘치고 사회에서 활약하는 활동기는 여름, 사람으로서 성숙해지고 결실을 맞이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수확기는 가을, 인생의 결실을 맺고 평온하게 지내며 자신에게서 빠져 나간 씨앗이 새로운 봄에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겨울-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인생 백세시대’ 라고 불리는 현재의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봄은 25살 정도까지, 여름은 그로부터 50살까지, 가을은 그 후부터 75살까지를 가리키며, 그 이후를 겨울이라고 보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계절 중에서 가을에서 겨울까지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생기 발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나뭇잎은 시들어 떨어지고 눈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춥고 적막하다는 인상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네 가지 구분으로 인생을 나누는 고대 인도의 ‘사주기(四住期)’ 라는 사고방식에서는, 가을에 해당하는 임주기(林住期)야 말로 인생의 황금기이며, 여러 가지 얽매임에 시달리는 일없이 인생의 최종 스테이지(유행기(遊行期))를 여유롭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떠나갈 것은 떠나가고 다시 가득 채워지는 가을의 하늘’ (이다 류타(飯田龍太 1920~2007))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그전까지 번잡하다고 느꼈던 것에서 조금씩 해방되어, 마음에 채워지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서 개운한 마음으로 겨울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살다 보면 때때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후회를 하게 되

는 일이 있는데, 특히 인생의 후반에는 그러한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런 회한이나 반성도 겨울을 향해서 가기 위한 확실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감이나 밤도 짧은 맛과 가시를 싫어해서는 양식(糧食)이 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로서 받아들이고 잘 다듬어야만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괴로운 경험도 ‘수확’해서 마음의 양식으로 바꾸고 겨울을 향해 가는 에너지로 만드는 것도, 그 시기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은 배움의 시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74세에 타계한 공자(孔子)는 <논어(論語)>에서 ‘원 살에 천명(天命)을 알았고, 예순 살에 귀가 순해졌으며, 일흔 살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法道)를 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정신적 변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되면 천지자연의 도리를 알게 되고,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이치가 마음에 통하여, 겨울에 들어서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예의와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겨울 시기의 한가운데에 있으나, 사람으로서 이 정도로 정숙(精熟)한 심경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와 지금의 평균수명을 생각해 보면 공자의 70살은 지금의 110살 정도라 할 수 있는데, 80대인 저는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솔직히 더욱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바람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배울 마음이 있으면 몇 살이 되더라도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어, 그 기쁨과 감동은 살아갈 활력과 함께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즐거움도 주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가사키(長崎) 평화기념상’으로 알려진 조각가 키타무라 세보(北村西望)씨는 우리 나이로 100살 때에 77세의 개조님과 나눈 대담에서, 건강 장수의 비결로 ‘화내지 않는다. 모든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조님께서 이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썩어져 건강에 좋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서 요청받은 책에는 반드시 <세심장수(洗心長壽)라는 글을 써 주신다는 평소의 자세를 밝히셨습니다.

배움을 깊이 하고자 노력하고 꾸밈없이 정직하게 — 이 자세는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배움을 깊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佼成』 2025年 9月号)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요

이탈리아·로마 법좌(남아프리카 주재) 앤드류 크리스티

입정교성회는 언제, 어떤 경위로 입회하셨습니까?

저는 입정교성회에 2013년 5월에 입회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살고 있으며, 약 20년간, 일본에 있는 불교교단에 들어가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교단의 배타적이고 관용적과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에 의문을 품고, 점점 발길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불교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입정교성회 웹사이트를 발견하였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코쇼님이 동 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하셔서 함께 부흥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가가 용기를 주시고 있는 헌신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읽은 저는, 바로 일본 입정교성회의 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아프리카에는 포교 거점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센터(현재 로마법좌)를 소개받아, 미즈모 카츠토시 센터장님(현재, 하마키타 교성회의 교회장님)과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웹사이트에 있었던 영어경전 PDF를 다운로드 해서 아침 저녁으로 독경공양의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조님의 저서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과 '보이지 않는 눈썹' 을 다운로드 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전자서적이라도 회장선생님의 저서 '마음 받을 간다', 코쇼님의 저서 '개조님을 본받아' 등을 구입해서, 입정교성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깊이 해 나갔습니다.

그 후, 로마센터와는 어떻게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나요?

로마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매일 교성지에 나오는 회장선생님 법화를 승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토론을 하거나, 또 어

느 날은 여러분의 체험설법을 들은 후 법좌를 하며 서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참가를 계속하고 있던 중, 2013년 12월에 미즈모 센터장님께서 요하네스버그의 저희 집까지 와주셔서, 교회권청 본존님을 안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뜨거워졌습니다. 이 안치식에는 기쁘게도 어머니와 누나들 약 10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92살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크리스천인데 제가 입정교성회 신앙을 하는 것을 웬일인지 기뻐해 주셨으며, 코로나 감염증이 만연했을 때에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연수나 법좌를 흥미 깊게 듣다가 끝난 후 저에게 여러가지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입정교성회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주 관용적인 교단이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가치관과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를 나타내며, 즉 다름을 초월



앤드류 크리스티

하여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는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가 현재, 국내외에서 열심히 종교간 대화와 종교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경공양을 기본 수행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 독경공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매일, 영어 번역 ‘법화삼부경’의 한 품을 반드시 넣어서 독경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특히 아침 독경공양은 출근 전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경공양을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친구나 지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자세로 임한다는 것, 자신을 깊이 내성한다는 것 등, 많은 공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매월 ‘교성지’의 회장선생님 법화를 타블렛에 다운로드 해서 매일 아침 저녁 반복해서 읽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 독경 공양 후에는 회장선생님의 법화를 읽고, 그리고 회사에서 집에 돌아온 후, 저녁 독경공양 후에 개조님의 법화를 읽는 것이 지금은 매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을 말하자면, 회장선생님께서 ‘마음 받을 간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지혜가 나의 쟁기이며, 부끄러움은 멩에이다’는 시를 가지고 우리들 회원들에게 반복해서 마음 받을 것의 중요성을 가리켜 주셨던 것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개조님, 회장선생님의 법화는 평소 나를 반성하고, 정진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입정교성회 본부를 방문 하셨는데, 어떤 일로 방문하셨나요?

저는 현재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로마센터의 온라인 활동밖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서, 입정교성회 본부에서 연수와 법좌수행 등을 대면으로 배우고 실제로 체험을 하는, 그리고 본부 권청 본존님을 배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불교는 내가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귀국 후, 본부에서 얻은 배움을 살려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넓혀 나가고 싶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일정은 10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개인 참배 형태로 입정교성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성당을 시작으로 본부의 여러 시설을 견학하고, 니가타현 토오카마치시에 있는 개조님 탄생지 참배, 입정교성회 국제 어드바이저 도미니크 스칼란젤로 박사님의 불교와 법화경 강의듣기, 내리마 교성회에서 의례의식 연수(중, 목탁 작법 연습)와 포교 실습 등,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내리마 교성회 여러분과 함께 본부 오에이 시키 일승 축제에 참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방문 기간 중 저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모든 연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전도부장님으로부터 불상으로 된 본존님, 즉 본부권청 이라는 감사한 주선을 받게 되었고, 또한 11월2일에는 미즈모 센터장님께서 다시 요하네스버그의 저희 집에 오셔서, 불상으로 된 본존님 안치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크리스티씨는 남아프리카에게 있어서 한 톨의 법의 췌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수행 목표, 그리고 장래 꿈을 듣고 싶습니다.



아카가와 케이치 국제전도부장님께 본부 권청 본존님을 배수받는 앤드류씨

Interview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에고나 분노를 없애고 관용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로 말하자면, 상대방 의견을 부정하거나, 감정대로 상대방을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언동을 받아들이고, 같이 있으면 안심되는 마음이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좀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불교 가르침의 요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불교와 법화경을 배우고 수행을 쌓으며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정교성회 회원으로서 앞으로 이 훌륭한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가까운 장래, 남아프리카에 교성회 승가를 형성하고 싶다는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집을 남아프리카의 포교거점으로 사용해서, 연수와 법좌 수행 등을 열수 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아프리카는 1994년 ‘유색인종 격리 정책’이 철폐되었지만, 과거 역사적인 배경과 영향으로 현재에도 빈곤과 치안의 악화, 높은 실업률 등 큰 과제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불교가 나라와 사회를 혁신적으로

로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정교성회 가르침이 이 나라와 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에시키 일승 축제에 참가하는 크리스티씨(중앙안쪽)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구제한다

입정교성회 니와노 닛쿄 (庭野日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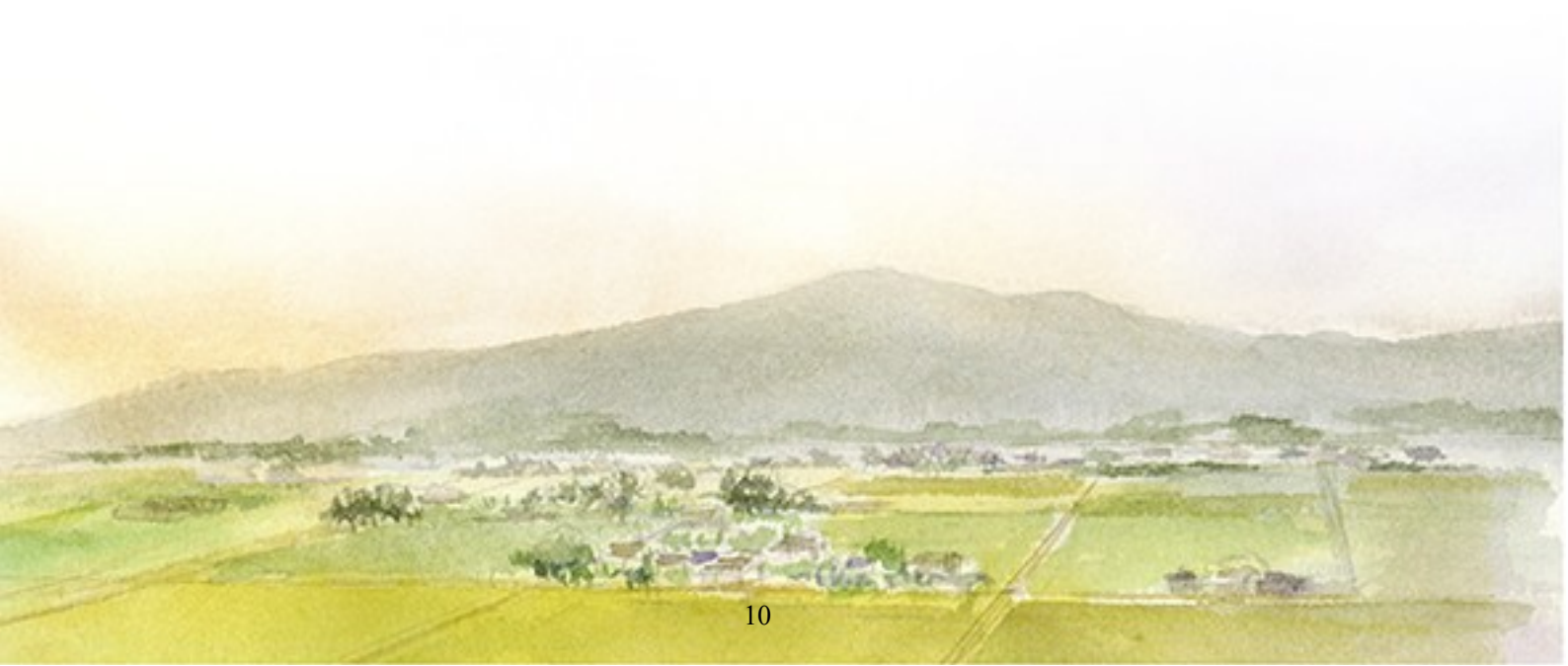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도 역시 내 옆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고(苦)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사람들을 「빈·병·쟁」으로부터 구제한 것은 초창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빈·병·쟁」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되풀이 독송하고 해설서를 자꾸 펼쳐서 그 진실을 몸에 익힘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의 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접하는 한 사람 한사람의 고(苦)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에 적합한 「방편」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설하시는 불법(佛法)이 그 자리에서 바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 귀중한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 어떤 계기로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싫증 내지 말고 보살행에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니와노 닛쿄 혜세 법화집1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Donate-a-Meal Movement

一食を捧げる運動(多言語)



마음이 기뻐한다

「한끼 바치기 운동」이란

‘한끼 바치기 운동’이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재해,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돈, 예를 들면 식사와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돈을 현금해서 지원활동에 도움을 주는, 죽 아픔과 고통,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1975년 일본에서 ‘한 달에 몇 번, 한 끼를 걸러서 그 만큼을 현금한다’는 형태로 시작된 운동입니다만, 지금은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세계 각지에서 여러가지 실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실천하는 세계의 승가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요코 와이카스키
입정교성회 뉴욕교회 플로리다 지구

손녀와 함께

저는 매주 일요일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2달러를 한끼 바치기 운동 현금 상자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입정교성회 뉴욕 교회(이하, 뉴욕 교성회)에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2달러인가 하면, 매주 행해지는 플로리다주 복권 티켓이 한 장에 2달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대신에 그 돈을 매주 한끼 바치기 운동 상자에 현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에 뉴욕 교성회의 스키노 유리 총무부장님이 한끼 바치기 운동 연수를 해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끼 바치기 운동은 생각이 떠오를 때만 했습니다만, 연수를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계속 실천해 보자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현금이 없을 때에는 종이에 ‘2달러’라고 낱짜를 써서 두었다가 현금이 들어왔을

때에 현금상자 안에 돈을 넣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잔돈을 발견했을 때나 잔돈이 있으면 바로 한끼 바치기 운동 현금 상자에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협력해 주게 된 것이 아주 감사합니다. 한끼 바치기 운동을 하면서 제 생활 습관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돈과 물건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 트레이시 시그만(Mary Tracy Sigman)
입정교성회 뉴욕 교회 포트 마이어스 그룹

한끼 바치기 실천이 나에게 있어서 왜 소중한가

많은 분들처럼 저도 교성회 리더 중 한 사람으로부터 ‘한끼 바치기 운동’ 현금상자를 받아서 그 상자에 식사대금을 기부하는 실천의 습관화를 배웠습니다. 한끼 분량의 식사를 실제로 먹지 않음으로써 정말로 못 먹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공복의 고통



을 몸소 아주 조금만이라도 느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월말에 ‘한끼 바치기 운동’ 현금 상자에 돈을 넣는 것만 할 뿐이었습니다. 현금을 하기 시작한 데에는, 입정교성회 한끼 바치기 평화 기금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속에 훌륭한 인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저희들의 집은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이안’에 의해 모조리 파괴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전이 복구되기까지 몇일이나 걸리고, 복구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조리기구는 전자레인지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몇 주간, 차가운 콩과 참치 캔, 땅콩버터 등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저도 체중이 줄어들고 말았습시다만,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 집을 다시 지을 장소와 살 곳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없는 고통을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체험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복구가 시작될 무렵, 친하게 지내던 이웃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던 그날 밤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몇 주간 만에 받은 손으로 직접 만든 요리는 정말로 맛이 있었고, 음식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감각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월 입정교성회 한끼 바치기 평화 기금에 기부를 할 때에는, 마음을 담아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끼니 거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달은 있어도, 자신이 끼니를 확실하게 섭취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입정교성회 ‘한끼 바치기 운동’을 통해서, 매월 힘든 상황속에서 현명하게 살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 행운이며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케빈 로셰이 교회장님
입정교성회 샌안토니오 교회

저희들이 계속해 온 ‘한끼 바치기 운동’의 지원과, 진심에서 나오는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들이 사는 지역에 배려심을 키우며,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텍사스 남부에 사는 우리들은, 이상기상이나 경제적인 곤궁, 이민족들이 안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영양가 있고 신선한 식사를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등, 많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샌안토니오의 푸드뱅크에 하고 있는 기부는, 지역 사람들을 지탱시키고 지역 유대관계를 단단하게 해주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단 하나의 행동, 그것이 설사 통조림 한통의 기부라 할 지라도, 몇 시간의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정성이 담긴 식사 제공이라 할 지라도, 그 하나 하나가, 굶주림에 고통받는 가족들을 지탱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힘든 시기에도 지역과 가정에서 배려심이 확실하게 길러지고 퍼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샌안토니오 교성회에서는 ‘한끼 바치기 운동’의 정신에 근거하여, 샌안토니오 푸드뱅크 식료품 기부 활동 권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지원 덕분에, 장기보존이 가능한 식품들이 큰 상자에 가득 모입니다. 이 기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사람들과 그 가정





에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 감염 사태 속에서도 더 한층 깊어져 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샌안토니오 교성회 회원들은 샌안토니오 푸드뱅크가 지원하는 지역 농장의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흙을 만져보고, 모를 심거나 비료를 뿌리거나 하면서 야채 손질을 진심을 담아 도왔습니다. 이 활동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대지와 동료와의 연대감을 깊이 해주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매월 샌안토니오 교성회는, 늘 같은 푸드뱅크에 100달러를 기부하여 지역 분들께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성회 승가가 다 함께 식사회나 행사를 연 후에는, 남은 요리를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한 회원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몸으로 나타낸다’는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 비전에 계몽되어 실천하는 세계 승가의 일원임에, 우리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의 승가들과 손을 맞잡으며 이 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담아서



그레이엄 커팅, 아키바 유나
입정교성회 런던센터

우리들이 ‘한끼 바치기 운동’을 처음 안 것은, 런던 법좌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그 후 바로 유나가 이 실천을 권유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잠시동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은 ‘한끼 바치기 운동’을, 불교의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인 육바라밀 보시행의 실천으로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이 실천에는 헌금을 하는 것 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달에 2일, 한끼를 거르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들도 가능한 한 그 실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한끼 바치기 운동’헌금 상자에 기부하기는 잊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눈에 띄는 곳에 헌금 상자를 놓았습니다.

짧은 단식은, 그것이 설사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공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식을 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매일 느끼고 있는 굶주림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약간의 허기짐을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혜택 받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속에서 ‘보시’ ‘공감’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이 운동의 또 다른 큰 의의는, 실천을 통해서 모인 헌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운동의 네트워크는, 기아에 고통받는 지역과 지진 피해지역, 분쟁 지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지원이 즉시 전달되기 위한 굉장히 뛰어난 구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네팔에 살았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 불가결함을 몸소 느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끼 바치기 운동’의 이념에는 자연스럽게 공감을 합니다.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실천 중 한 가지인 보시의 정신을 ‘한끼 바치기 운동’을 통해서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주위에도 더 넓은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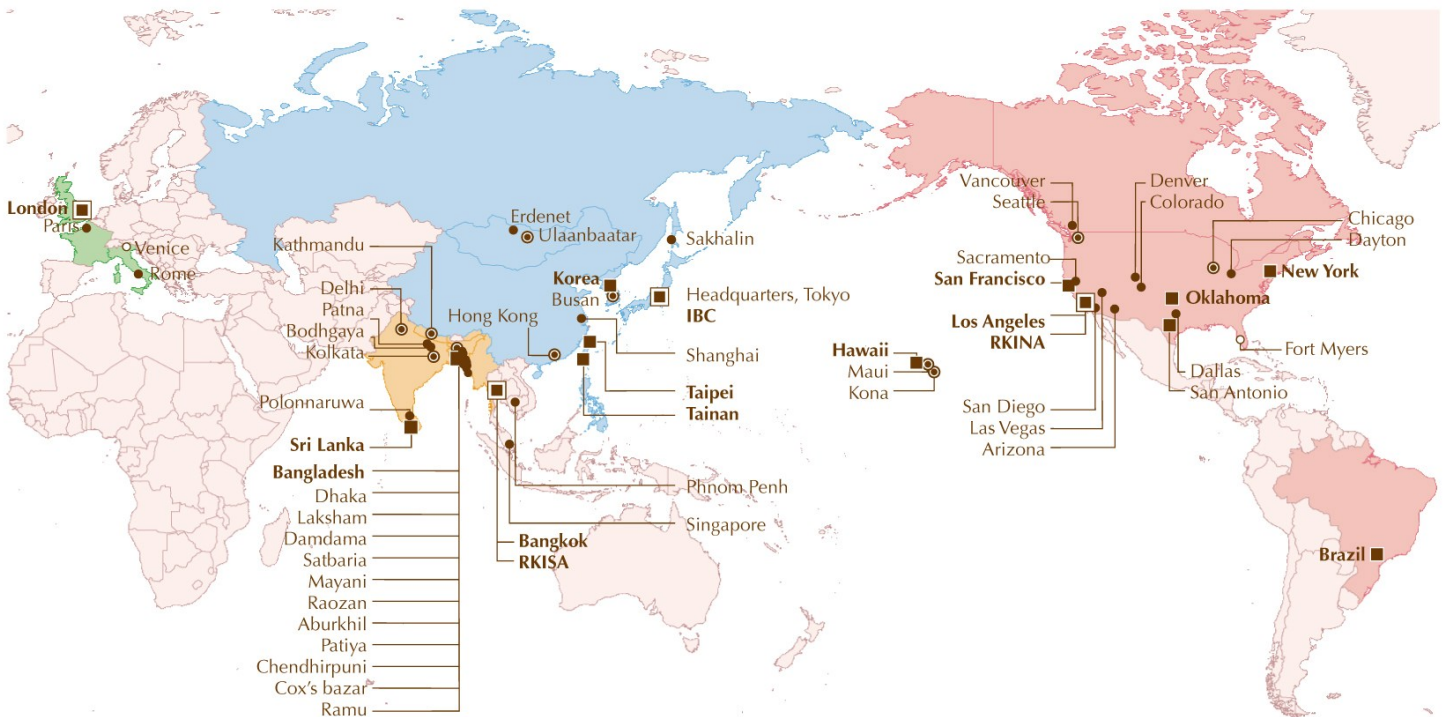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